

고교생 문예공모 백일장 당선작

대상

등행
조채린
(용화여고 3년)

“엄마, 엄마, 내 친구 영사기 끝내, 나한테 정수를 주는 건 순진한 엄마 덕이라는 거야. 엄마가 젊고 예쁘게 나보다 엄마가 더 마음에 든다!”
“시집 한번 더 가도 될 정도라고 하는?”
“에 그렇다니까요!”
엄마의 그런 소나길은 농담들은 나에게 활기를 주었고 나의 동생은 구경이 지냈다. 다른 부모들처럼, 부모들은 권위를 앞세우려 하거나 버릇장처럼 운운하며 우리를 훈육하려 하지 않는 엄마가 더할 수 없이 좋았다.

흔들 엄마 태도에는 무슨 완고한 신념이 나 주권으로 떠돌던 양식이라고 보든, 나에게는 유독 엄마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겐 믿음이 되고 있었다. 엄마는 내게 있어서나 동생에게 있어서도 단 하나뿐인 어머니였다. 또한 아무 가식이 없었으며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이해와 위로로 어루만져 줄 사람이라고 믿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엄마는 양육권을 차지했다. 때마침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계절을 바꾸는 사람처럼 일상에 깊이 몰두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던 시절엔 엄마가 살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대학은 포기한 상태였고, 방과 후에는 엄마를 도와 가난의 무게를 짊어주는 지혜로운 딸처럼 가고 있었다.

한때 대학의 포기가 인생의 포기처럼 괴롭고 인생장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마음여기며 따라서 살아낸 엄마가 정말로 것이었기, 조금 풀려나 버려지는 세상은 무한히 자유로우며, 단순하고 희망적이며 가능성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래 친구야 오신다 오신다고 했는데 좀 늦었지나 보다. 네 버릇 지?”
엄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발보듯 양육권을 지키고 있었다. 기계 같은 알고리즘도 한층을 대문밖에 몸을 구기고 앉아 가르침이 커져 있는 거리를 쳐다 보았다.

엄마!..... 엄마!.....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니었지. 그래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양육권과 결별 후는 무서워서만 일한 양생이지. 그런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저 모자란 친구들 때문에 좀 늦었지 뿐 아니라. 그 한편이, 나는 수없이 창으로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말하고 타인과 다짐하고 그랬다.

무서운 무서워하는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버릇지었다. 엄마는 맑은 얼굴로 아침에 일어났다. 할 기갈은 밤새를 온몸으로 옮기면서.....

나는 먼저 반기웠고 벽이 찢겼고, 한심하기도 했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무엇인지 이모를 몰라 물어의 한순간 목으로 치밀었고, 그리고 몇 나중에는 한밤바 꿈에 붙었다는 게 억울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엄마는 자주 외출을 했고 달라지게 시작했다. 우선 양육권을 내게 맡기며 미안해하기 시작했고 소나길은 이야기가 없어졌으며, 끝없는 무슨 생각인가 빠져 들기 시작했고, 때 없이 한숨을 토해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아냐!”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예요?”
“일도 무슨.....”

엄마는 상상을 펼치지 않았다. 반면에 그랬다. 내가 좀 절친을 하러 들면 엄마는 지레 뒷걸음질 쳤다. 수상했으니까. 공평했으니까. 나는 그냥 볼 수밖에 없었다. 아니 어떻게 도 엄마의 속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 엄마도 엄마만의 고민이 있으셨지 하고 접어 두었다. 아냐가 아니라 열서 네 엄마도 요즘같이 정년대가 됐는지 잔소리 늘어났고 하지 않았던가. 아마도 엄마만의 고민이 있을거야. 그러나 엄마의 수상한 집사는 없어지지 않았다. 사라지지도 사아내려지도 않았다. 더 심해져서 밀실사라워 지더니만 밤중에 이인데 똥배같은 창으로 똥배같은 아이들 들먹이는 것이었다.

“저, 단 안일 좀 바. 너무 쓸쓸해 보이진 않나? 단항무도 저를 나가 위해서는 동행자가 필요할까?”
“생각해봐. 모든 세상것들이 함께 할 거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
“엄마, 다시 사귀세요?”
“어는..... 무슨 말을 못하냐나.....”
그녀가 그 흥부캐같은 비밀은 그 이틀날 그 체를 드러내곤 있었다.

중년시와 동행한 엄마의 모습은 정년대를 신장처럼 보였다. 생명이 필요없었다. 나는 갑자기 목이 쉰거였다. 목이 쉰 거라면서 정제를 알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대한 분노가 이처럼 절렬하게 혈관을 뒤흔드는 것인지 스스로도 분별이 서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거기에는 엄마 대신 동행자를 찾을 수 있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대상에 융화여고 조채린양 장원 장현수군(시) - 고유미양(산문)

우리학교가 주최하고 본사와 국어교육과가 후원한 제30회 전국 고교생 문예 공모 백일장에서 융화여고의 조채린양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1일 본문을 본선에서 장에서 열린 이번 백일장에서 조채린양이 대상을 받은 것

장원

내 일

고유미
(대전 성모고 3년)
회귀를 쫓아 놓은 작은 배낭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아주 출가불한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깊숙히 가라앉고 싶었다.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서 벼를 깨는 바스에 몸을 맡긴 채 사람들을 뺀 채로 혼자 서 있었다. 목격자들 없이 무작정 버스로 오는 나는 총 수 십여 차례 격조와 주위인 수 일이라는 생각에 잠겼다 장 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쁜 직직!”
울적 울적한 아침은 그리움을 삼키기 위해 눈을 감았다. 돌기를 일으키며 걷는다는 것은 반질 반질 그 나쁜 현우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녀석의 기류가 담긴 벽을 안고 발 없이 서 있는 무한한 대도 속에서 보였다. 할 수 있을거야 생각되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렇지만 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명으로 본 것일 뿐이다. 사방을 둘러보고는 한두 줄을 헤쳐 나갔을 것이다. 미칠까도 모르지만 해도 그럴 바에 나뭇잎 하나 그려서 매달아주지 그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까, 영영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아 잠자기가 무섭다며 몸부림치는 녀석에게 간호사를 불러 수면제를 먹게 해 준 일밖에 없다. 삼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나 달라졌을까? 장이 들었던 모양이다. 변칙 정신이 드는 순간 무겁게 열리는 눈꺼풀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장 밖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미를 쫓고자 주지 않고 네 벼계 지나가 버리는 포도밭 나무 사이로 붉은 눈을 끼고 조용히 펼쳐져 있는 작은 마을이 보였다. 그리고 햇빛이 스쳐 집들이 뒤로 사라지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일 장현수 (광주 평덕고3년)

방배와 어떻게 어떻게 원고지를 제워가다 수채화같은 등장으로 달이 뜨면 아버지의 가난한 등발머가 떠올라 어유없이 눈시울이 울려진다. 죽도 밟도 안된다. 흐르는 물결을 태워 난리머 시가 되지 않는 가슴은 연신설처럼 꼭 두루진다.

나의 잠은 어디까지 왔을까 깊은 보지 않고 가슴은 갠터미만 우수수 바스라지기도 했다.

그런 밤마다 자비할 창문을 활짝 열어 제기면 언제나 어두운수목 더욱 빛나는 것들 서쪽저녁을 들어 머리를 감으며 밤새를 묵은 아픔들을 털어 내고 한통치의 원고지를 서려 대문을 나설때면 눈앞으로 불꽃 해가 솟았다 다시 아침이다.

당선소감

당선 소감을 쓰는 것이 먼저 부담스럽다. 한편의 글을 읽어서 내기 위한 나의 고민들이나 노력보다는 나의 고교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 향토문학동맹회가 무엇보다도 생각난다. 점심시간이나 쉬식시간, 그리고 토요일 오후 서로의 시를 가지고 함께 흥취한 밤과 눈물들, 그 아련한 추억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매년 회보를 내놓으며, 시화집을 치루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가를 보지 않는 한 현실이든 오바를 모습으로 그려낸 우리의 약속들을 중요시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으로 더 열심히 느낀다.

앞으로 혼자 더 노력하기보다는 ‘향토’에서 만난 동기들, 선주배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멀리 광주에서 나를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떻게 해야 털이 털이 지는데?”
“응, 물을 해야 주면 돼. 그런 똥똥 지려!”
코피는 내 뒷목을 말랑말랑하게 식각하게 고만하러나 나갔고 땀이 내려갔다. 그러더니 웃음 모두 있고 속으로 땀이 들어 마구 뽀글거려서였다.

“아저씨, 이렇게 하면 돼?”
“응, 나를 향해 소리쳐라. 난 그제 밭고랑이 솟아올라!”
“정말 이렇게 하면 어러이 되는 거지? 허허. 난내 우리 할머니는 똥사랑말이 오면 ‘똥’이란 수미지, 저 똥 장가가는 것을 봐야 하디는, 으이구, 지

한다.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을 향하는 동안 열매인양이 지나쳐 버렸던 나무 한 그두, 구름 한 조각도 집에 들어가는 동안에는 꼭 놓치지 않고 원고지에 채워보았다. 내게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언어로 말마귀하는 멋진 미술을 마음껏 향유하는 기쁨속에.....

당선소감

문학을 향한 길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경험한 마음과 기쁨이 들어가는 폭 넓은 내일이 있다. 막대한 꿈꾸에서 조금은 벗어난 마음으로 다시는 꿈, 여러 사람에게 무언가 담아서 줄 수 있을지.....

WOOL의 느낌속에 남자는 깊어진다. X-GATE

남성 비즈니스 웨어의 전통 (주)삼성의 신세계 표현, 엑스게이트. 기법과 부드러운 WOOL로 착용자의 실용성과 ITALIAN STYLE의 세련된 신세계 감각에 동시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 표현정형 X-GATE

(주)삼성 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서울 1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1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2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3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4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5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6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7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8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9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10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11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대형 매장 12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5 7점버지 빌딩 (02) 556-0303

